

안철수 독자 세력화... '창당 준비 10인 모임' 가동

홍보·기획·일정·메시지 등 역할 분담... 조만간 총선 사무실 마련 부산 간담회 反부패·反이법·反수구보수 인재영입 3원칙 제시 총선 '물적 기반' 확보, 현역의원 20명 교섭단체 구성 여부 관건

새정치민주연합을 전격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독자 세력화를 위해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15일 안 의원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최근 대선캠프 출신 인사와 의회 보좌진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기구, 이른바 '신당창당준비모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애초 지난 8월말 안 의원의 정무적 자문 그룹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13일 안 의원의 탈당 선언 이후 세력화 및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임 참여자는 김경록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와 이태규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소장, 박인복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박왕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관악' 이사장, 홍성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용해 전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김지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왕주현 전 민주당 교육부장 등이다. 또 김도식 안 의원실 수석보좌관과 안 의원의 서울 노원병 재보궐 선거 때부터 함께 한 서종화 전 서울시의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여명이지만, 안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는 새정치연합 당직자들이 탈당해 합류하면 그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은 홍보·기획·일정·메시지 등 역할 분담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세력화 및 총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을 여의도와 가까운 마포 등지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은 매일 모여 2~3시간 이상 회의하며 세력화 계획을 논의 중이며 안 의원은 회의에 잠깐씩 들러 논의 내용을 전달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탈당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고향 부산을 방문,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탈당 배경과 향후 세력화 계획 등을 밝혔다. 안 의원은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물 영입의 3대 원칙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헤드헌팅을 위한 공개구애에 나섰다. 안 의원이 내놓은 '인재영입 3원칙'은 반(反)부패·반(反)이법·반(反)수구보수로 요약된다. 안 의원은 또 향후 독자 세력화의 정치노선으로는 격차해소와 통일문제, 정치개혁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시대과제 두 가지는 격차해소와 통일문제 아닌가"라며

"이 두 가지를 이루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오는 17일에는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안 의원이 정치세력화를 통해 총선에 참여하는 '물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무엇보다도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 원내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자간에 이뤄지는 여야간 협상에 한 축으로 참여, 국회의원은 물론 정점법안 처리 및 선거구획정 협상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을 상대로 새정치연합과 펼치게 될 야권내 주도권 내지 선명성 경쟁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훨씬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재정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도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이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 신당을 창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현역 의원 20명 확보 기준)할 경우 안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최대 87억9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럴 경우 안철수 신당은 먼저 내년 2월15일에 1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7억9533만원을 받게 된다. 이어 3월 24~25일 총선 후보등록을 마지면 이를 이내에 총선 보조금으로 1년치 국고보조금에 육박하는 70억원 정도를 받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하며, 그래도 남은 보조금은 의석수와 최근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실탄이면 신당으로서 총선을 치르는데 '천군만마'의 지원세력을 얻는 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 20명 확보에 실패,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고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협뉴스



서울 은 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돌아와 차로 향하고 있다.



부산 간 안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15일 고향인 부산을 찾아 오찬간담회를 하는 음식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협뉴스

뜨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 새정치 앞서

광주, 전남·북 30.4% "안철수 신당에 투표"... 새정치는 27%

새정치 지지층 安 탈당 부정적

지난 13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후 첫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 탈당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과 야당 지지층의 견해가 대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지난 1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총선일 때 어느 당에 투표하겠나'는 질문에 '안철수 신당'은 18.6%로 새정치연합(23.0%)을 오차범위 내에서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에서는 30.4%로 새정치연합(27.0%)을 오차범위에서 앞섰다.

다만 새정치연합 지지층 내에서는 안 의원의 탈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다. 전체적으로는 안 의원의 탈당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54%로, '잘못했다'(29%)보다 훨씬 높았지만,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잘했다'(34%)와 '잘못했다'(54%)가 엇갈렸다. 분열의 책임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 지지층 중에서는 안 의원이라는 응답(24%)이 문 대표(21%)보다 오차범위에서 더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유·무선 RDD(임의전화걸기)를 병행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표본오차 최대 ±3.5포인트, 95% 신뢰수준이었다. 응답률은 25.4%였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양산 구상'... 난국 돌파 복안은?

하루만에 상경 국회 회담 참석... 오늘 최고위 회의 수습책 제시할 듯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의 수습책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를 생략하는 등 당무를 중단한 채 부산의 모친을 방문하고 양산 자택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5일 상경했다. 당초 이날까지 정국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의 현안인 선거구획정 문제 때문에 오전 국회로 복귀해 여야 대표,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했다.

문 대표는 16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난국 돌파를 위한 복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이날 현 상황의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표 측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총선 준비 일정이 상당히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서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가 16일 선거대책위 구성, 인재영입, 호남민심 보듬기 등 후속 카드를 제시하며 비주류 진영의 공세 차단과 주도권 회복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표가 50대가 주축이 된 '세대혁신형 선대위'를 선보이며 당의 이미지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호남특위' 구성과 어떠한 인사들이 참여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민심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호남권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2016년 01월 08일(금) ~ 02월 22일(월)**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대표전화(062)234-3222팩스 (062)234-29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로 겨울방학 가족, 연인과 함께 일본유선 여행을 즐겨보세요!

1 January					2 February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27	28	29	30	31	1	2	3	4	5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북큐슈/실속 선착순 24명 4일 성인/749,000원-편식 어린이/719,000원
성인/799,000원-호텔 어린이/769,000원

북큐슈/짬짜 4일 성인/899,000 어린이/849,000원

야마구치/짬짜 4일 성인/929,000 어린이/879,000원

남큐슈/짬짜 4일 성인/1,049,000 어린이/999,000원

▶ 무안 ↔ 씨엠림 전세기 ◀

- 수요일 출발 -

씨엠림/양코르왓(3N) 4일 성인 /1,100,000원 어린이 /1,050,000원
/1,180,000원 /1,130,000원

씨엠림 골프 4일 36홀 /1,450,000 ~ 1,520,000원
54홀 /1,550,000 ~ 1,620,000원

- 토요일 출발 -

씨엠림/양코르왓(3N) 5일 성인 /1,110,000원 어린이 /1,050,000원
/1,180,000원 /1,130,000원

씨엠림 골프 54홀+양코르왓관광 5일 /1,550,000 ~ 1,620,000원

※당서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계동다 2003-1호) 여행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보증금(여행비용100%,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법제14조,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당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차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여행사 등록(세무신고)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경비없음(다.가게/가이드봉역로,선착관,국공 비자비용 별도) ●회사 홈페이지:www.joytour.kr